

제 6호
동행

2018.09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소식지

同行

同行

1. 같이 길을 감

2. 같이 길을 가는 사람

DONG-HANG

2018. 9. CONTENTS

1

동자와 멘토멘티 알아보기

동자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2

실험실 이야기 2 : 면역학 연구실편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대학원생 대상 인터뷰

3

축산 부산물 로드

닭발.. 순대.. 곱창.. 어디까지 알고 먹어봤니

4

이 달의 학부생

의경 합격! 현재는 군인 신분! 17학번 박수현 인터뷰

5

칵테일 동아리 휴림 인터뷰

칵테일 하면 휴림! 휴림하면 칵테일! 서울대 중앙동아리 휴림 취재

6

동자와 실험실 취업현황

반추동물영양생리학실 졸업! 석사 박사 선배님 대상 인터뷰

7

동자와 Crossword

뭔가 익숙한 단어들로 해결하는 낱말퍼즐. 안 익숙한가..?

8

후문선답 : 후배들의 물음에 선배들이 답했다

학교생활에 관해 궁금한 점을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질문해보았다.

9

BeLePi 빵물리에

카페 BeLePi. 당신은 그곳의 빵을 진정으로 음미하고 있는가

10

축산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축산 기능사.. 축산 기사..? 우리가 몰랐던 축산 자격증

제
목
을

누
르
시
면

해
당
기
사
로

연
결
됩
니
다.



동자과



동자과 멘토멘티 알아보기 

글 : 정승은, 김현겸, 허수민

디자인 : 동희원



동자과

Facebook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근무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에서
동물생명공학 전공

2018년 7월 1일 오전 12:03



이제 Messenger에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해보세요.



앙케이트



1. 제일 케미가 좋은 멘토/멘티는?

1위 박수현-최유진(18표)
2위 장민혁-허수민(3표)



2. 가장 연락을 자주할 것 같은 멘토/멘티는?

1위 박수현-최유진(9표)
2위 허수민-장민혁(7표)
3위 문형우-이해랑(3표)



3. 가장 (외적/내적으로) 닮은 멘토/멘티는?



1위 박수현-최유진(17표)
2위 김세윤-이하림(4표)
3위 배범석-김서준(2표)



손 흔들기



인터뷰



멘토/멘티의 첫인상은?



아는 게 많으시고 유쾌하셔서 어색한 분위기를 너무 쉽게 풀어주셨다.



반듯하게 생겼다.



얼굴에서 수줍음, 기쁨, 기대감 등이 양껏 드러나서 매우 귀여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게 생겼습니다.

멘토/멘티의 이런 점이 좋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내가 놀리는 것도 잘 받아준다.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먼저 편하게 대해주신다. 경험을 토대로 새내기가 모르는 부분을 잘 알려 주셨다!



나는 멘토의 귀여운 점이 좋다!

멘토/멘티와 했던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



롯데! 데! 월! 드!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빵물리에 벨에빠 빵 먹기 활동!



인터뷰



멘토/멘티에게 고맙거나 미안했던 경험 !?



심리학개론 맨날 대리출석 맡겨서 미안했다
ㅌㅌ



심리학개론 공부할 때 같이 논의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



제가 연락도 잘 못하고 반 모임도 나가지
못해서 자주 못 만나는 게 가장 미안하고 밥약
한 번 더 하자고 했을 때 고마웠어요!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장점 !?



대학생활의 첫 단추에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분 좋은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후배와 선배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를
통해 교류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인
만큼, 서로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며
소스나 책을 제공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 또
멘토 멘티가 있기에 서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멘토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 조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종강이 다가오니 서로 바빠서 잘 못 만나는 것 같아ㅜㅜㅜ 종강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밥약하자! ㅎㅎㅎ 그럼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고 학교생활 잘 보내길 바라:) 질문 준비하고 수합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현이 회장 꼭 하길...

멘티의 마지막 한마디!

 재미있는 코너인 것 같아요. 동행 파이팅~!! 햇반 파이팅! 앞으로 멘토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ㅋㅋㅋㅋ 멘토 멘티 프로그램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한 게 아쉽다.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시길! 😊 민우형 사랑해요 ❤️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분들

실험실 이야기 :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편

글 : 조상현, 최준일 / 디자인 : 유승학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9월부터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구민정입니다.

Q.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간단히 연구실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 연구실은 “면역학 및 백신 개발 연구실”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가 축산관련 학과인 만큼 닭, 돼지, 소 등 경제동물에 관한 면역학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 세포 수준에서의 면역학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

니다. 먼저 경제동물의 연구주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경제동물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포함된 각 성분이 면역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인간에 관련된 연구로는 인간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내 면역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하여 연구에 필요한 면역세포로 분화시키고, 이 면역세포의 특징, 배양 조건 등을 관찰하고, 더 나아가 면역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양한 후보물질들을 처리하였을 때, 면역세포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이야기 :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편

Q. 동물면역학의 동향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면역계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 특히 경제동물에 관한 면역학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육종학과 같은 전통적인 축산분야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 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동물 면역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축산선진국의 경우에는 동물 면역학에 관련된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류독감, 구제역과 같이 경제동물에게 치명적인 전염병 등이 계속 일어나는 만큼 동물 면역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면역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미래에는 경제동물 면역학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제 희망이자 바람입니다.

Q. 연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연구를 하는데 있어 저희 연구실의 주된 모델 동물인 닭이나 돼지 등의 실험동물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경우는 실험동물을 학교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지방 곳곳의 농장과 도축장으로 실험 샘플을 구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과 도축장이 서울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 아침 일찍 서둘러서 출발해도 저녁 늦게 학교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학교 내에 생기면서 샘플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이 가끔 나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태어난 지 1년 이상 된 닭을 5마리 정도 받아와 학교에서 실험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태어난 지 몇주 지나지 않은 병아리만을 이용해 연구하다가 성체 닭을 이용해 연구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연구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자부심이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경제동물에 있어서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 면역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데 경제동물 면역학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의 몇 안 되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국제학회에 우리 연구실이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미래에는 우리나라 경제동물 면역학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람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실 이야기 :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편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사 졸업 후 아마도 포닥으로 해외 또는 국내의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동물 면역학 분야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으로는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계속 학교에 남아 있기보다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미국과 유럽 같은 동물 면역학 선진국에서 연구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부생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학부 시절은 고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학부생일 때 여행을 가도 제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연애를 해도 제일 마음 편히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연구실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막연한 자신감으로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많이 고민해보고, 또 알아보고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박사 과정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게 되고, 또 졸업을 하기까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는데 만약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만약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 때부터 관심 있는 연구실에서 인턴생활을 해보면서 먼저 경험해보는 걸 추천해요.



축산 부산물 로드

글. 최연희, 동희원, 허수민 / 디자인. 전태규

닭발[Chicken Feet] 닭의 발에서 발톱이 있는 발끝을 절단하고 남은 부위로 만든 요리를 뜻한다. 닭은 달걀에서부터 고기와 내장까지 버리는 부분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그중 닭발은 닭의 발목 아래에 해당하는 부위로 뼈가 얇은 연골의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씹히고, 껍질은 콜라겐과 같은 결합조직 단백질이 붙어 있어 쫄쫄한 식감이 난다. 닭발은 양념에 재워 갖은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경우가 많으며,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에 술안주로 자주 곁들여진다. 오래 두면 누린내가 날 수 있어 구입 후 바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선홍색을 띠며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

제조과정 닭발은 잡냄새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닭발을 깨끗이 씻은 뒤, 밀가루, 굵은 소금의 순서대로 바락바락 문질러준다. 닭발을 씻어낸 뒤 냄비에 넣어 물, 생강, 마늘과 함께 20분간 삶아 낸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후춧가루, 간장, 설탕, 맛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삶아낸 닭발은 물기를 제거한 다음, 양념장에 고루 무쳐 재워 놓는다. 기름을 두른 팬이 달궈지면 마늘을 넣어 볶다가 야채를 넣는다. 여기에 재워놓은 닭발을 달달 볶아낸 뒤, 마지막으로 대파와 고추를 넣고 한 번 더 볶는다. 닭발 볶음을 접시에 담고 통깨를 뿌린다

효능 닭발에는 콜라겐과 콘드로이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이나 신경통, 피부 미용에 효능이 좋다. 아연도 풍부하여 혈당조절 당뇨와 정력강화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 닭발의 키틴, 키토산은 혈액 응고의 촉진을 통한 지혈 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항암 효능도 있다. 리놀산산은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혈당조절에 좋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도 좋고, DHA, EPA등의 성분은 두뇌개발에 효능이 있으며 어린이 성장발육을 촉진한다.

〈최연희〉★★★★☆

처음 음식이 나왔을 때부터 강렬해 보였다. 닭발을 한 두 번 먹어보았는데 모두 엄청 매웠기 때문에 이번 닭발 역시 그래보였다...! 무뼈 닭발을 시켜서 뼈를 발라야 한다는 불편함과 부담 없이 씹어 먹을 수 있었고 쫄깃쫄깃했다.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먹는 것이 제 맛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나에게에는 너무나도 매웠기 때문에 주먹밥이 필수였다! 주먹밥도 우리가 직접 싸서 먹는 재미가 있었고 그나마 혀를 식힐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한껏 달아오른 입안을 마지막 계란찜으로 마무리 하면 완벽 ~ 매운 정도가 너무 강해서 좀만 덜 매워도 나처럼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의 입맛에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희원〉★★★★☆

첫 입부터 흐르는 눈물이 매워서인지 맛있어서 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양념과 쫄깃한 닭발의 질감이 잘 어우러졌다. 혀 안에서 건강한 닭들이 자연방사 양계장을 통통튀는 발로 빨리 달리기 하는 듯한

〈서울대입구 : 수상한 닭발〉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로53길 8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18:30~, 일요일 휴무
가격 : 무뼈닭발 13,000원, 통닭발 10,000원, 국물닭발 10,000원

환상을 자아냈다.
중국 무뼈 닭발 제조
과정에서 맨입으로 발라
낸다 한들 포기할 수 없는
맛이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면
주먹밥과 계란찜은 필수라고 생각
한다. 식사보다는 술안주로 더 추천한다.
맵짤이에게는 호불호가 갈릴만한 맛이다.

〈허수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다른 식당보다
긴 편이다. 닭발은 매워야 맛있지만 이 집 닭발은
정말 매워서 물을 계속 먹게 된다.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강한 맛이었다. 주먹밥이랑 같이 먹는 것이 매운
맛도 중화시켜줄뿐더러 주먹밥 자체가 맛있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국물 닭발과 통닭발이 다 팔려서 다양한 메뉴를 먹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흥어냄새도 났다.

돼지부산물 로드 : 순대

순대란 돼지 창자에 숙주 · 우거지 · 찰밥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찌서 익힌 음식이다. 일반적으로 순대는 돼지 소창과 같은 작은 창자를 이용하지만 대창으로도 순대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광장시장이다. 또 순대 종류로는 찹쌀순대, 고기순대,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명태순대, 백암순대, 병천순대, 피순대, 연변순대, 채소순대, 암뽕순대, 막창순대, 꿀뚜기순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제조과정

당면, 찐 찹쌀, 야채 등을 검수한 후 보관한다. 이후 당면을 1 bath씩 불린다. 불린 당면을 55℃에 데친 후 냉각한다. 당면, 찐 찹쌀, 야채 등을 배합 시키고 세척한 소창에 배합물을 충전한다. 원형으로 순대모양을 내어 찜기에 투입 하고 가열 완료된 순대를 온수로 열기를 식힌 후 5℃ 이하의 온도로 순대를 냉각시킨다. 냉각이 완료된 순대를 포장 단위별 중량으로 측정한 후 포장한다.



CCP한계조건의 온도, 시간을 설정하여 살균하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5℃ 이하의 냉각수로 냉각시킨다. 금속검출을 한 후 그를 통과하면 포장한다.

효능 순대는 해독작용을 한다. 돼지창자국(순대국)은 공해독은 물론 사람 몸에 있는 나쁜 병원균까지 치료해 주는 신비한 해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돼지 내장은 낫이나 수은등 우리 몸에 유해한 독을 풀어주고, 비타민F라 불리는 리놀산과 많은 종류의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있다. 또 돼지의 피는 빈혈, 신경쇠약에 좋으며 돼지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간염이나 야맹증, 시력감퇴 예방에 특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연희〉★★★★★

순대곱창이 조금 매운 편이라 서비스로 주시는 식혜가 필수였다. 하지만 순대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맛이다. 백순대는 전혀 안 매워서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유독 매운 걸 못 먹는 나라서 내 입맛에는 순대곱창보다는 백순대가 더 맛있었다. 특히 백순대에 같이 나오는 면(사리)가 진짜 맛있었고 떡도 함께 먹으니 꿀맛! 또한 순대를 다 먹은 후 나오는 볶음밥이 JMT. 순대곱창이 너무 매워서 많이 먹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식혜도 서비스로 주시고 아주머니께서 자식들처럼 정겹게 해주셨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양도 진짜 많아서 다음에 또 다시 오고 싶다.

〈동희원〉★★★★☆

백종원의 3대천왕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집이다. 후추가 섞인 양념장이 매우 인상 깊었다. 갯잎에 순대, 곱창, 양배추, 양념장을 올려서 쌈 싸먹는 방법이 최상의 콜라보를 이룬다. 볶음밥이 아주 맛있으므로 순대와 곱창으로 배를 1/2만 채우도록 하자.

〈신림역 순대타운 ; 전주익산집〉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9길 14 원빌딩 지번신림동 1640-31 302호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새벽 2시
 가격 : 순대곱창(2인분) 14,000원, 백순대(2인분) 14,000원

백순대가 살짝 심심한 맛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했다.

〈허수민〉★★★★+반 별

여기 진짜 맛있더라.. 순대도 쫄깃하고 떡이나 야채들도 신선하고 조화를 너무 잘 이뤘음. 그리고 가격대비 양도 많은 편. 무엇보다 백순대 먹을 때 주신 그 고추가 올려진 그 양념장,, 그게 진짜 신의 한 수.. 무슨 양념장인지 잘 모르겠는 데 순대랑 너무 잘 어울리고.. 백순대랑 양념곱창 같이 먹는 것도 킬링 포인트,, 먹다가 살짝 느끼하면 순대곱창 한 입 먹고 이걸 반복하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순대곱창의 볶음밥은 처음 먹어 봤는데 느낀 거는 볶음밥은 항상 the love이고... 맛 부분에서 전 아쉬운 것이 없었고,,, 굳이 얘기하지만 가게가 찾기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지 못한 점...?

소부산물 로드 : 곱창, 막창, 대창

곱창(small intestine): 소나 돼지의 소장을 가리키는 말로 튜브상태로 '탄력섬유 많은 곳이다. 다른 살코기에 비해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맛도 독특해서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병후 회복식 및 보신요리에 잘 이용된다.

막창(abomasum): 소의 제 4위를 뜻하는 부위로 '홍창'이라고도 하며, 주로 구이나 탕의 재료로 쓰이는 식품이다.

대창(large intestine): 소의 큰 창자로 작은 창자인 곱창보다 구매 관리가 쉬우며 로스율도 적어 구매단가가 낮다.

제조과정

곱창 : 곱창의 특유의 냄새를 없애려면 우선 물에 담가 핏물을 충분히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핏물이 깨끗이 빠지면 마늘이나 생강으로 냄새를 제거한다. 이때 조미용 술이나 후춧가루, 산초 등 향신료를 기호에 따라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또한 냄새의 원인인 곱창 표면의 흰 굳기름을 떼어내야 하므로 밀가루와 왕소금을 넣고 여러 번 씻어서 제거한다. 밀가루는 나쁜 냄새를 흡수해 양과 곱창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막창 : 내장부위이고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손질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막창을 손질하려면 겉과 속 부분에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고 소금과 밀가루로 번번 씻어낸 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내면 된다.

대창 : 소의 내장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먼저 신선한 대창을 쌀뜨물에 5~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지방조직 및 기름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비벼서 냄새를 제거한다. 이때 조릿대 가루를 함께 넣어 씻으면 냄새 제거와 살균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월계수 잎이나 꽃차를 넣어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효능

곱창 : 곱창은 다른 살코기에 비해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맛도 독특해서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병후 회복식 및 보신요리에 잘 이용한다. 또한 당뇨, 술 중독, 몸의 독성해소, 장내해독, 살균, 이뇨, 피부미용, 피로회복, 노약자의 양기부족,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다. 또한 알코올 분해 작용이 뛰어나 술안주로 알맞으며 위벽 보호, 소화촉진 등의 이로운 작용을 한다.

막창 : 일반 살코기보다 칼슘 성분이 월등히 많고 고단백 저콜레스테롤 식품으로 어린이의 성장부진 및 구루병에 좋으며, 성인들의 골다공증 및 골연화증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또한 분해 작용이 뛰어나 위벽 보호, 알코올 분해,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준다.

3. **대창 :**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빈혈기가 있는 사람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또한 무기물과 단백질이 많아 위와 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다.

〈최연희〉★★★★★

메뉴가 나오기 전에 선짓국이 나왔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쫄깃쫄깃하고 내 입맛에 잘 맞았다. 모든 곱창을 시켜서 맨 처음 먹은 것은 염통이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소고기와 식감이 비슷해서 놀랐고 괜찮은 맛이였다. 모든 곱창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곱창인데 안에 들어있는 곱이 진짜 고소하고 기름과 함께 어우러진 맛이 환상적이었다. 막창과 대창 역시 기름기 찰찰 흐르는 비주얼에 맛 역시 최고다. 곱창 다음으로 막창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데 쫄깃쫄깃하다. 대창은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고 있으면 먹는 정도이다. 안에 차 있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었지만 이것저것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다.

〈동희원〉★★★★★

염통은 담백하고 분식집에 나오는 간을 좋아한다면 좋아할 맛이다. 곱창은 안에 곱이 가득하여 씹을 때마다 탄성을 자아낸다. 육회와 볶음밥 또한 훌륭했지만 대창구이를 따라올 맛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석곱창〉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로 491-1
 운영 시간 : 매일 16:00 - 03:00, 연중무휴
 메뉴와 가격 : 곱창, 막창, 대창 11900원, 양깃머리, 염통, 간전엽 10000원
 모든 곱창 15000원

종류에 상관없이 겉이 살짝 타기 직전까지 익히고 일어갈 무렵 나오는 기름에 익힌 부추를 올려 같이 먹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육즙과 부추를 함께 씹을수록 힘겨운 반추 소화 작용을 견뎌낸 4개의 반추위의 탱탱한 맛이 더 잘 느껴진다. 소주 안주로도 제격이다. 느끼하면 소맥을 추천한다. sns에 올리면 육회를 서비스로 주고 볶음밥도 가성비가 정말 좋다. 대신 사람이 많아서 주문하려면 카운터로 직접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허수민〉★★★★★

곱창을 맛없게 요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곳 곱창은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곱이 가득해서 특유의 비린 맛이 없는 최고의 곱창이었다. 그리고 염통은 오랜만에 먹어보았는데 쫄깃하고 간도 내 입맛에 딱 알맞았다. 참기름에 찍거나 부추랑 같이 먹어도 맛있지만 양파 장아찌랑 같이 먹는다면 느끼함도 덜할 뿐만 아니라 단짠단짠의 조화를 완벽하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볶음밥의 양이 정말 많아 마무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달의 학부생

글 전태규
이석종
전민경
디자인 김민영

17학번 박수현

이번 달에는 의경에 한번에 합격한 동물생명공학전공 17학번 박수현 학생이 이달의 학부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부생들에게 익명채팅방으로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들을 토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혹시 의경 합격 비결이 뭐예요?

미리부터 준비했어요. 입학하자마자 의경 훈련병으로 갈 거라는 큰 꿈을 안고 미리 알아보았답니다. 처음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대를 안 갈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의경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거기에 관심이 끌렸죠. 의경 시험 중에 팔 굽혀 펴기가 힘들다고 해서 한달 반 전부터 계속 연습했어요.

의경 언제 가요?

7월 5일에 가요^^.

팔굽혀펴기 연습하는 팁 있나요?

우선 정자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 개씩 늘려가면서 최대 개수를 늘려갔습니다.

'팔굽혀펴기 20개 의경시험 기준으로 하면 무지 힘든데 운동 열심히 하셨나봐요. 군대 잘 다녀오세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 방에 올려 줬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의경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의경이 다른 군대보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주말마다 외출할 수 있고, 외박, 특박에 휴대폰도 사용 가능하죠. 덜 힘들기도 하구요. 운전병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도 안받고.



대형 운전면허 취득은 많이 어려운가요? (1종이나 2종이랑 비교해서 설명해주셨으면 ㅎㅎ..)

대형 운전면허 취득은 엄청 쉬워요!! 주행시험볼 때 시내버스같은 버스로 보는 게 독특한 점이긴 한데 적응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면허는 3일만에 땀고 마지막날 시험볼 때 새벽까지 술 마시고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ㅎㅎ 2종은 애기고 1종은 12인승 버스까지 대형면허는 45인승 큰 관광버스나 덤프트럭까지 몰 수 있어요. 군대 가서 운전병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아니면 버킷리스트 5개정도...?)

없어요.. 군이 말해보자면 열심히 배드민턴 치다가, 술먹고 구르다가, 자다가 굴러서, 십자인대 끊기. 애 셋 낳기. 손가락 자르기. 뭐 이 정도?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네는 안 갈 것 같지?

박수현씨의 주량은 최대 얼마인가요?

저도 몰라요...

박수현씨의 최애(가장 좋아하는) 술은 무엇인가요?

준벅이라고 하는 칵테일이 있어요. 6월의 벌레라고 부르며 벌레가 꼬일 정도로 달콤한 술이죠. 멜론과 코코넛의 달콤함이 너무 좋아요. 말리부,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주스, s&s가 들어갑니다.

한 달 술 값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자 봅시다. (갑자기 핸드폰 가계부를 보더니, 지출에 놀람) 6~70만원 + a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하루에 소주를 많이 먹나요 물을 많이 먹나요?

소주를 훨씬 많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물 얼마나 먹죠?? 기껏해야 생수 병으로 한 병인데.. 술 마실 때는 그것 보다 더 많이 마시잖아요.

술 마실 때도 물을 마실텐데..?

아 저는 술 마실 때 물 안 마십니다.. 배불러서.



렌즈 삽입술 후기.

정말 좋아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약을 넣으면 마취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찢는듯 한 느낌이 나고 눈앞이 안 보이는데, 계속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회복실에 가서 10분 동안 눈 감고 있으면 그 뒤로 일상생활 가능했어요. 눈이 너무 나빠서 렌즈삽입술을 하게 되었죠.

군송주는 언제 드실 예정인가요?

술 마실 때마다 마시지 않을까요?

의경 붙었을 때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축하해 ** 어떻게 의경을 한번에 붙냐 **놈아. ㅎㅎ육은 모자이크해주세요.



연애할 때랑 솔로일 때랑 장단점은?

같이 무언가를 할 사람이 있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혼자 있으면 허전하지만, 자유로워요.

작년에 밥약으로 얻어먹은 만큼 밥약 많이 해줬나요?

후배님들이 밥약을 안 거네요....ㅏ 군대 가기 전에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잡아주세요!!

지난 3학기를 다니셨는데, 학점도 괜찮고 활동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생리학 듣기 전에 놀아. 노는 게 질릴 만큼 놀아야 공부를 할 수 있어. 요즘 노는 게 질려서 공부가 재밌으려고 하더라.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군대 꼭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칵테일 동아리 휴림 인터뷰

글 : 최유진, 박수현 / 디자인 : 전태규

여는말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지 반 년이 조금 안된 지금 이 시점에서, 마셔 본 술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평-범 그 자체라서 안타까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 살, 아니 하루라도 젊을 때 마시지 않으면 몸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말을 가르침으로 삼아 ‘칵테일’에 도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새내기들이 칵테일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어려운 느낌에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만 그런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칵테일’을 무서워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전격! 서울대 유일 칵테일 동아리 ‘휴림’ 인터뷰!

인터뷰

Q. 휴림은 무슨 뜻인가요?

A. 休(쉴 휴)+林(수풀 림)이라는 한자를 써서 고단한 학교 생활 중에 편히 한 잔 마시며 쉬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A. 매주 세미나(월, 화, 수, 목)을 진행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고, 시음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롱차&민트 세미나, 탄산 세미나 등이 최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엔 조주기능사 실기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휴림이라는 동아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봤겠다, 본격적으로 칵테일을 마시려는 데… 아니 잠깐, 설마 이걸 읽고 있는 당신! ‘칵테일’이 정확히 뭘 말하는 지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Q. 칵테일이란?

A. 위스키, 브랜디, 진 등의 양주를 섞고 감미료나 과즙을 얼음과 함께 혼합한 술 칵테일의 기본이 되는 술로는 4대 기주인 진, 보드카, 테킬라, 럼이 있다.

진: 정류 알코올에 주니퍼 베리라는 열매로 향기를 내는 무색투명한 증류주

보드카: 러시아에서 온 술로 밀, 보리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후 증류시킨 증류주

테킬라: 멕시코의 용설란이라는 식물의 수액을 이용하여 만든 탁주를 증류시킨 증류주. 마실 때 손등에 소금을 올리고 그것을 핥으면서 쪽 들이켜 마심

럼: ‘뱃사람의 술’. 사탕수수의 즙을 발효시킨 후 증류시킨 증류주 색에 따라 화이트 럼과 다크 럼으로 나뉨



진



보드카



테킬라



럼

이쯤 되면 그냥 칵테일이나 마시자고 하겠지? 아니 아직 안돼. 설마 칵테일 하면 이리저리 흔들어서 섞는 것만 떠오르는 건 아니지? 세상에..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두라고!

Q. 칵테일 제조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Shaking, Build, Floating.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haking은 말 그대로 흔들어서 섞는 방법, Build는 재료를 글라스에 직접 붓고 저어주는 방법, Floating은 밀도 차를 이용하여 술의 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에 해당되는 칵테일들을 마셔보았다!



칵테일 마실 생각에 신난 최유진씨(20)
“아이 신나”

-Shaking 벤시

(재료사진-왼쪽부터 카카오 리퀴르, 바나나 리퀴르, 우유)

여기서 잠깐! 리퀴르란? 증류수에 당류, 색소 등을 가하여 만든 술. 민트, 카카오, 바나나 등 맛이 다양하다

후기: 향은 바나나 우유 향에 초코가 조금 섞인 느낌. 다만 조금 인공적인 느낌이 강했던 것 같다. 맛있기는 했지만, 가장 맛있지는 않았다.



벤시

-Build



스피카

스피카

(재료 사진- 왼쪽부터 카시스, 피치트리, 사진에는 없지만 토닉워터와 사워 믹스도 들어간다.)

후기: 원래 사이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이다 대신 토닉워터를 넣었다. 이처럼 원래 레시피와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게 칵테일의 매력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셔본 결과 세상 최고 맛있었다. 상큼한 게 마치 트와이스가 내 앞에서 ‘What is Love’를 추고 있는 듯했고, 시원함으로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듣고 있는 듯했다. 벤시와 다르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게 더 맛있었기 때문이다.

모스코 물

(재료사진- 왼쪽부터 스미노프, 라임주스)

후기: 정말 넣은 대로 맛이 나는 것 같다. 라임 맛이 확 전해져 오는 게 라임농장에서 갓 딴 라임을 생으로 먹어서 풍부한 비타민C에 없던 괴혈병도 치료되는 느낌이었다. 아 물론 인공적인 느낌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맛있었다. 개인적으로 스피카 다음으로 맛있었다. 쓰고 나니 내 취향을 알 것 같기도 하다. 상큼한 맛이 나는 칵테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모스코 물

-Floating

B-52

(재료사진-왼쪽부터(혹은 칵테일의 위층부터) 그랜드 마리너, 베일리스, 칼루아, 151프루프인 바카디에 불을 붙여서 맨위층에 올려 놓았다)

여기서 잠깐! 프루프란? 술의 도수를 뜻하는 말로 151
프루프인 술은 우리나라식으로는 75.5도에 해당한다.

후기: 크림이 들어간 술인 베일리스의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해서
아쉬운 맛이였다. 이 글을 쓰고있는 와중에도 속상하군.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마시고 입 안에서 혀로
섞은 뒤 삼키면 된다. 커피, 크림 맛이 느껴졌고 조금 느끼한 감도 있었다.



B-52

Q. 그 외에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칵테일이 있나요?

A. 개인적으로는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면 준벅, 파우스트, 피치 크러시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도수가 높으니 그 점 유의해주시면 좋겠네요. 달지 않은 술로는 마티니가 있는데 술
잎 향이 나고, 많이 쓴 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휴림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세미나 중에 ‘러브 포션’이라는 칵테일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참고로 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마셨습니다.(눈물) 또, ‘라모스 진 피즈’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크림과 계란 흰자를 섞기 위해 적어도 15분은 흔들어야 하거든요. 사람 한 명 고생시키고 싶을 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반죽처럼 될 때까지 흔들어야 해서 실제로는 3~4명이서 함께 만듭니다.

닫는 말

이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나니 마치 바텐더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칵테일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다면 A+은 따 놓은 당상이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지식은 정말 티 안 나게 똑똑한 척을 할 수 있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특히 좋아하는 여성과 칵테일 바에 가서 칵테일에 대해 잘 모르는 그분에게 당신의 지식을 뽐낸다면 그 여성분을 꼬시기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써먹을 사람이 없다면 뭐.. 안타까울 뿐이다. 아, 물론 이 글을 적고 있는 본인도 써먹을 사람이 없다. 조금 속상한 밤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박수현(21세, 곧 군대 감) 선배님이 빨리 군대를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7월 5일은 아직도 한참 멀게만 느껴진다.

동자과 실험실 취업현황

반추동물영양생리학실

박은혜 선배님

감동근 선배님

본 기사는 김동민, 김민영, 윤재현 학생이 위 선배님
들과의 대면인터뷰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구성은 유승학 학생이 맡았습니다.

자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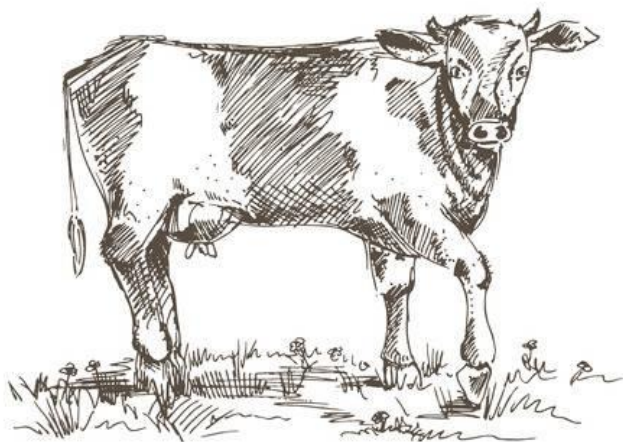
04학번 박은혜입니다. 석사까지 한 후 졸업해서 지금 직장을 다니지는 8년이 되었어요. 처음 시작은 첨가제에 관한 다른 업체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이지바이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학부생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왜 석사를 선택하고 취업을 하신건가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취업이 어려웠어요.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어학연수를 하러 갔었는데 어학연수를 했던 것도 영어가 기본인데, 영어를 말할 기회가 없어서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 1년을 쉬었어요. 근데 막상 갔다 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신은 취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취업을 하자는 생각을 해서 2학기 시작하자마자 하반기 지원을 몇 개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생각해보았는데,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를 오래 다닐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서 취업을 해도 제대로 회사를 다니게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알아보고, 반추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추실을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들어갈 때에는 학과가 아니어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필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확 떴을 때여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전공을 선택할 때 동물 쪽을 선택을 하였어요. 다니면서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깐 오히려 전공 축산 쪽이 더욱 재미가 있었어요. 원래 관심이 조금 있긴 했지만 굳이 왜 반추실이나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박사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고, 무조건 석사까지 하고 취업을 할 예정이었어요. 한 분야를 많이 아는 것 보다 넓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단위 영양을 공부하면 반추 동물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반추동물을 공부하면 단위 영양은 기본으로 공부할 해요. 그래서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반추를 선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큰 동물을 좋아해요(웃음).



석사 때에는 어떤 것을 공부하나요?

그 때에도 첨가제를 했었어요. 원래 반추동물에는 첨가제를 별로 안 쓰는 걸로 아는데 다행히 저한테 연구과제로 첨가제가 떨어져가지고 엔자임으로 했었어요. 이게 실험실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보통은 들어가면 선배들 하던 거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아서 진행하는 형식이었어요. 반추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닐 때에는 다른 교수님이셨는데, 그 때는 분위기가 본인 것만 하는 분위기였어요. 선배들이 굳이 후배 들어왔다고 시키지도 않고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는 분위기..? 제가 첫해 들어갔을 때 연구과제를 1년 시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같이 들어가서 2년 동안하고 졸업을 했어요.

실험실 선택할 때 교수님의 방침도 고려대상이 되었나요?

약간 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완전히 선배들이 아예 안 시키는지 몰랐어요. 다른 실험실의 경우에는 일이 많아서 후배들을 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 처음에는 약간 힘들수도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실험 장비 다루는 것을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심한 실험실의 경우에는 본인 것 못하고 선배들 것만 해야 하니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학연수 갔다 온 것이 도움이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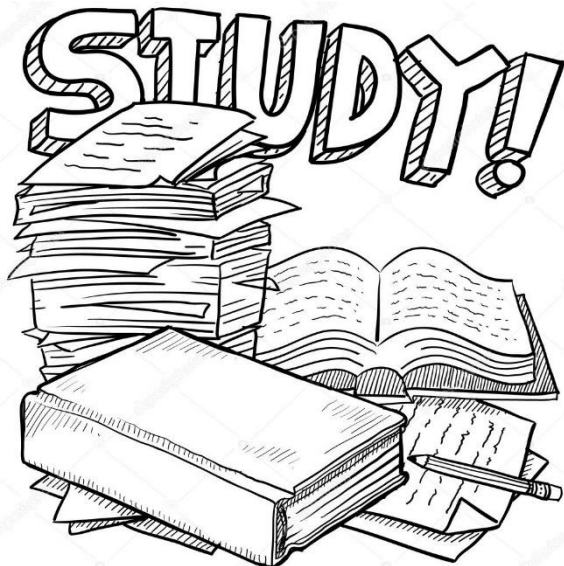
저희 때만 해도 딱히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던 것이 아니라서.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때가 영어 시험으로 스피킹이 생기고 그럴 때여서 토익도 스피킹 점수를 더욱 봐주고 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학연수가 도움이 되었네요. 그리고 대학원에 올라가서, 제 실험실에 외국인이 있어서 많이 대화를 했어요. 처음 제가 취업을 했을 때 해외사업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어쨌든 일하는데 도움은 되었네요. 그렇지만 근래의 본인들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굳이 1년씩이나 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웃음)

석사과정이 취업이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업계로 간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료회사나 첨가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통 축산이고 영양인데 그쪽으로는 사실 거의 가르치는 것이 없다 보니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사실 공부를 해야해요. 그런데 회사에 취직해서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공부하는 대에만 노력을 쏟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만약 취업을 한다면 석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석사를 할 때에는 학문적으로 깊이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논문 보는 법도 배우고 실험 보는 법도 배우고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배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기업 내에서 석사 경력을 따로 인정 해주나요?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석사 경력 인정을 별로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료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첨가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깐 인정 해주는 곳도 있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1년 인정해줘요. 이쪽은 아마 안 해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사람 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왜 지금 이 기업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CTC바이오를 다니고 다음에 진바이오텍을 다니고 이지바이오로 옮겼어요. 진바이오텍은 제일 작았고 CTC바이오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꽤 큰 회사예요. 기업별로 다른점은 CTC 같은 경우에는 동물 약품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 동물 약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지바이오라는 법인 아래 첨가제/자돈 사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지바이오 법인인죠. 그래서 첨가제만 따로 빼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체 매출로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해외 쪽은 아직까지 도전하는 입장이라서 이지바이오도 그렇고 CTC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학부생 생활이랑 대학원 생활이랑 회사 생활에서 무엇이 힘든가요?

대학원 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고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회사는 내가 열심히 하건 말건 중요하지 않고 잘했는지가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들어요. 사실 업무가 힘들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회사 다니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회사 그만두는 사람 치고 나 여기 월급이 적어서 그만둬 라는 사람보다 누구 때문에 힘들 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는 석사까지 했지만 박사까지 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고 사실 학부만 졸업하고 온 사람들과 같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회사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과장 차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는 굉장히 안 맞을 수 있어요.

과장 차장이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더내리는 지위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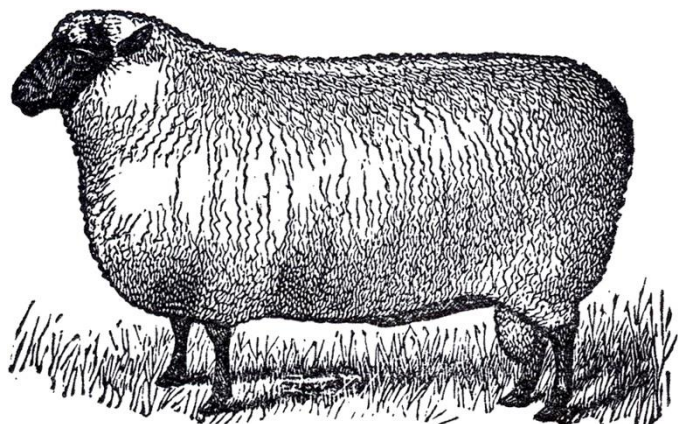
그렇죠. 원래 보통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가는데, 과장이면 이지바이오는 7년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때문에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과, 7년 동안 대학원 생활을 한 사람 간에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들어보면 저희가 축산 쪽이라서 다행인 것 같네요.

물론 박사하고 축산쪽으로 취업하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 잘 써먹을 수 있긴 하죠.

지금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 학부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딱히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웃음).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특별히 다른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이 일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어쨌건 이것이 엄청 크게 발전할 산업도 아니지만 없어질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내가 이 쪽 업계로 가야하나 다른 업계로 가야하나는 빨리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자격증은 따로 공부한 것 있으신가요?

아뇨 저는 없어요. 근데 영어는 진짜 필요해요. 어쨌든 국내는 더 이상의 발전이 별로 없어서 해외로 가는 것이.. 그리고 영어에 대한 평가는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영어로 문답을 해요. 그리고 영업을 하면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와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본인에게도 좋죠.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혹시 학부생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은게 아쉬워요. 처음에 잘 못 따라 잡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에도 생물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입학해서 생물학 수업을 듣는데, 정말 처음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됐고, 기초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수능이 대박나서 서울대를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친구들이 똑똑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조금 더 욕심을 가졌을 걸이라는 생각을 해요. 관심이 있건 없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은 다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초를 닦아 놓는다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대기업 공채 뜰 때 지원하는 것이요. 지금 제 기억에 03학번 대기업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영어를 무지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저 때에는 그렇게 가는게 크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도 일반 기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대학원도 본인이 자대 출신이라고 무조건 뺄거더라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떨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학부생 인턴 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실험실에서 미리 하지는 않았고, 4학년 1학기 끝나고 김유용 교수님 농장 있잖아요. 거기서 두달 일했거든요. 그 때 배운게 되게 많았어요.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농장에 가면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줘야 하고 그런걸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를 전공수업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또 취업해서도 잘 알려주지는 않고.

축산분야가 재밌어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신건지?

생물학 기초가 없다고 했잖아요? 생명공학 쪽이 너무 어려웠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쪽이 별로 맞지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죠.

첨가제랑 사료랑은 또 많이 다른데, 아무래도 사료보다는 첨가제 쪽이 더 재미가 있긴 할거예요. 사료에서는 그다지 실험이라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첨가제는 대학에서 박사까지 공부하며 배운 것 써먹으면서 일하는데 사료쪽은 별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료회사에서 제일 중요한게 배합비이고, 배합비를 다루는 사람들은 박사까지 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아마 다른 포지션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회사가 어떤지를 잘 알고 들어가야 해요. 처음에 저는 회사의 매출을 보고 비교해서 들어갔었어요. 사실 학부생들은 선배들에게 잘 물어보고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거예요. 사내분위기, 회사에서 하는 일 다 꼼꼼하게 알아봐야해요.

연구직으로 들어가기 많이 힘든가요?

아마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구직이라는 게 실제와는 많이 다른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연구소 쪽에서 제품 개발하려는게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박사까지 하면 연구소 쪽보다는 마케팅 쪽으로 들어오는게 본인이 공부한 걸 활용하는 데 좋아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첨가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 농장 등의 다른쪽 실험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사내에서 맡고있는 업무는?

저희 팀이 마케팅 팀인데, 일반적인 광고 홍보의 마케팅이 아니라. 다들 석.박사 급으로 공부하신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해요. 또 연구 관리, 실험 관리 하는 것 하고, 제품들 소개하는 자료 만들고, 제품 첨가제도 배합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배합비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다 하려면은 사실 학부로는 좀 부족해요. 혹은 학부라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할 거예요.

출장은 자주 가시나요?

출장은 영업이 아니다보니 크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국내로는 따로 가는데는 없고 해외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을 공급받는 회사에서 대리점 미팅 할 때도 있고 학회에서 정보를 얻어올 때도 있어요. 또 박람회 나가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예요. 사실 그런데 영업이라고 해도 두 세 달에 한 번? 이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은 2~3주일 있는 경우도 있네요. 아마도 해외 영업 쪽으로 사람을 구하는 회사는 꽤 될거예요. 영어를 많이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동자과 실험실 취업현황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은혜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감동근 선배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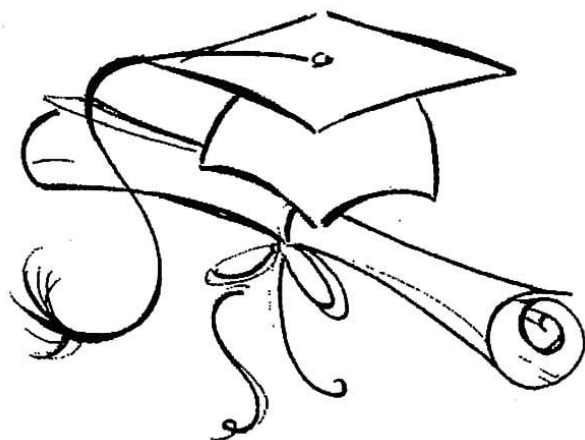
저는 동물자원과학과 92학번 감동근입니다. 지금 카길 애그리퓨리나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동물자원과학과를 입학해서 92학번으로 들어와서 98년도에 졸업을 했고, 군대를 다녀온 뒤에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 진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대학원 문을 두드렸어요. 하종규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하교수님 방에서 쭉 공부해서 석사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과정을 하는 동안 분야가 일반 영양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많이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PCR을 전부 기계로 돌릴 텐데 그 때 PCR은 X-ray 필름으로 보던 때 이거든요. 교수님과 그쪽 일을 하다 보니 훗카이도 대학 교수님께도와고 박사 과정 때는 미국 코넬 대학에 계신 제임스 B 러셀이라고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분 방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캐나다 구엘프대학에 세실풀스버그라는 교수님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쓴 실험을 하고 왔어요. 분자생물학 쪽을 하다 보니깐 서울대에서 많이 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많이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는 CJ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5, 6년에 중국담당으로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 축우연구 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들어오라는 사장의 명령으로 중국에 나간 지 2년만에 다 접고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서 5년 정도 CJ에서 일을 하고 2012년도에 CJ를 그만두고 현재 회사로 옮기게 되었어요. 현재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R&D 박사로 입사를 했었으니까 연구 쪽에 있다가 마케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4년째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 일을 하는 것은 '퓨리나'라는 브랜드의 축우 사업 쪽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맡은 지 3년째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전직을 한 거라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학부생 때 인턴생활을 하셨었나요?

저희 때에는 그런 과정이 있지는 않았었고, 대학원 갈 사람은 보통 3학년 때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냥 대학원에 있었어요.

전직이라는 건 결정을 하신 건가요? 명령이 내려온 건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인 소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옮기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는 회사에 들어와도 지도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나의 보스, 나의 보스의 보스 같은 사람들과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즉 5년 뒤의 나의 모습은, 3년 뒤의 나의 모습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내 리더들하고 이제 많이 소통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 왔을 때 그런 소통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회사에 왔지만, 기회가 있으면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고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와 한국 축산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연구도 기여이지만 제 관점에서는 젊으면 젊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야 말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해서 막 공부를 마치고 온 신선한 피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비즈니스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도전을 하고 싶다, 라고 제 리더들에게 많이 표현을 했고요. 다행히도 제가 회사에 와서 2년 뒤에 평창캠퍼스에 저희 연구소가 하나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 6개월 정도 짧게 팀장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크게 회사 조직을 바꿀 때가 있었는데 마케팅 겸직을 제안해서 어차피 해보고 싶던 일이고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마케팅을 전담한 것은 아니었고 겸직이었는데 비즈니스 쪽을 해보자 해서 마케팅을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자유로운가요?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그 기회를 회사에서 찾을 수 있나요?

회사라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전문성을 되게 강조하고 장인정신을 강조해서 한 분야에서 30년 40년씩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축구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포워드만 잘해도 됐다면 어느 순간부터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는 올라운드로 뛰는 박지성 같은 선수잖아요? 수비하라 하면 수비도 하고 공격하라 하면 공격도 하는 것처럼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이 최종적으로 manage director까지 올라가면 리더십이고 리더십은 경영이잖아요? 회사에서는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저는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거여서 옮기게 되었죠. 물론 회사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고 분명 전문성으로 끝까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을 굳이 빼서 경영에 쓰지는 않아요. 할 이 유가 없죠. 그래도 내가 모르는 나의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상당히 흥미로워 하고 좋아해요. 모든 능력에는 도전이 필요하고요. 도전을 하지 않은 회사나 조직은 곧 죽어요. 세상이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깐 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5년 뒤에는 쓸모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에 늘 회사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맡겨보고, 새로운 능력이 보인다면 도전을 시키고 그릇이 커지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대학원에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하셨을 텐데 대학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셨나요?

저는 사실 크게 미련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군대를 돌아왔을 때 IMF가 터졌었거든요 1998년에. 취업설명회를 오는 회사가 1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이라는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학원에 대한 염두는 하고 있었어요. 동물을 좋아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동물을 잡아먹는 축산과 인 줄 모르고 저희 과를 왔었어요. 그래도 2학년 때는 과가 뭐가 중요하냐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군대에서 내가 동물을 좋아하니 축산이라는 분야에서 동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맘을 먹고 제가 생각하는 동물에 대한 철학이 우리 과에서도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군대에서 대학원을 생각했어요.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소 돼지 닭 중 소가 되게 정겨웠어요. 하종규교수님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요구사항도 많지 않으셨고, 그 전에 학부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은 저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지지해 주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컨택을 하게 되었죠.

석사를 하시고 박사를 당연히 하시려고 하였나요?

네, 저는 당연히 박사까지 하려고 했어요. 군대에서 앞서 말한 생각을 하고 석사를 하면서 까지는 원래 교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사는 당연했던 것이었고 외국 나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었죠. 교수님께서 석사 때부터 일본도 갔다 오게 해주시고 미국도 캐나다도 다니면서 계속 외국에 있기도 해서 당연히 포스트 닥터를 달고 교수자리가 있으면 교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그 때만해도 동물자원 쪽에서는 분자생물학을 정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박사를 마치고 나니깐 많은 사람들이, 동물자원과학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대가 분자생물학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으로 명함을 내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축산 쪽으로 갔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C)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갔었죠. 결과적으로 박사자리까지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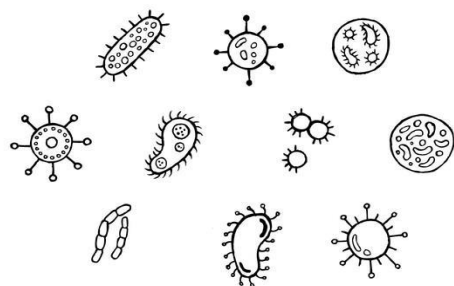
연구실의 생활은 잘 맞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교수님의 스타일이 노터치였거든요. 그 분의 리더십이 학문 스타일도 그러시고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심지어 대학원방도 잘 안 오셔요. 애들 방해한다고.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끼리 사회를 만들어서 나름 그 안에서 생활을 만들었어요. 룰도 정하고 공부도 하고 놀 때는 확실히 놀고 술 한 번 먹으면 진하게 먹고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연구비를 교수님께서 일괄 관리하시면서 실험실비를 주셨어요. 그걸로 박사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실장이 관리를 하죠. 저도 실장을 할 때 이거 가지고 되나 더 줘야 하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박사를 졸업할 때 과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 때 보니까 당신께 들어가는 돈까지 전부 저희에게 주시던 거더라고요. 솔직히 학생으로써 풍족했어요. 부족하진 않았죠. 월급은 적은 돈이니 의미가 없지만 밥 먹는 거 이런 것을 내 돈 내고 사먹은 적은 없으니까요. 식비는 실비로 했고 술 한 잔 마시려고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교수님을 찾았죠. 주 1회 정도 교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선배들에게 많이 얻어먹었죠. 재미있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대학원 때 연구는 무엇을 하셨나요?

석사 때에는 반추위에 서식하는 곰팡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흑염소에서 뽑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실험실이 곰팡이 연구로는 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연구실이었어요. 왜냐면 그 때 우리 한국 재래 산양에서 뽑아낸 곰팡이 하 나가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연구한 곰팡이는 평범한 아이인데 우리 재래 산양에서 뽑아서 그 안의 유전자를 뽑아내서 벡터에 심어 넣고 그 벡터를 다시 박테리아에 전이시켜서 그 박테리아를 다시 넣어서 살리는 실험은 했었어요. 박사 때에는 전이 실험은 하지 않았죠. 제가 박사가 되어보니까 전이는 산업적으로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GMO가 되잖아요.

GMO가 되면 학문적으로는 연구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업적으로는 그 당시에 GMO의 폐해 같은 것에 대해 말이 나오면서 막 분자생물학이 분업이 되면서 위험성이 언론에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전환을 한 것이 반추에 있는 미생물 중에 섬유소 분해 박테리아에서 enzyme을 추출해서 그 효소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효소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연구였어요.



기업을 가셨을 때도 그 연구하신 것을 써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을 썼다면 더 좋겠지만 분자생물학을 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해서 써먹을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도움이 안된 것은 아니었고 당연히 도움이 되었죠. 연구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이거든요. 어떠한 주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생각해둔 문제에 대해 논제를 정해두고, 이 논제가 과연 규명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지가 박사 논문의 핵심이잖아요. 그 과정은 어떤 것을 해도 마찬가지로 예요. 따라서 박사 논문을 써본 경험은 모든 일에 도움이 되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논리적인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본이 갖춰져 그러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 기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석사도 박사도 잘 경력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 업종은 박사 인정을 좀 해주거든요. 학문에서 박사과정까지 한 것이 산업에 있을 때는 일반 사원들과 달리 논리적인 판단이나 정보에 대한 처리가 가능 해서 회사 생활을 잘 했어요. 물론 사료 설계를 R&D 할 때는 해보았으니 사료 설계를 할 때 효소제나 사료 영양분이 반추 위에 들어갈 때 어떤 매커니즘으로 움직일 지 연구하는 것에는 자신 있었죠.

R&D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 죠. 산업 쪽에서는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응용 학문 쪽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축산물을 만들기 위한 사료를 만드는 곳이 R&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연구하죠. 사료에서 축산물로 가는 매개체는 동물이잖아요. 즉 R&D는 우리가 먹이려는 사료를 통해서 최종적인 축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증명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R&D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첫 번째가 원료 평가예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양소가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고기가 되고 피가 될 것이냐 이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원료 평가예요. R&D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동물 자체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환경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이라는 똑같은 영양을 공급했는데도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100이 11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외부요인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예를 통해서 사료를 공급할 때 어떻게 먹었을 때 가장 최적인지도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R&D죠. 쉽게 말하면 Research는 말 그대로 연구하고 이 안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지를 숫자로 단백질이 몇 프로냐 단백질 소화율이 몇 프로냐 해서 표현하죠. 그런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하고 그 숫자의 지표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Research라고 하면 Development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제품 혹은 솔루션이나 툴을 만들어 주는 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해서 아이폰을 만드는 것은 Development를 한 것이고 Research는 아이폰을 Development하기 위해서 여기에 LED 패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연구하고 discussion하는게 Research이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평창에 있는 저희 회사 연구실의 경우 TAC라고 불러요. Technology Application Center, 말 그대로 Application Center예요.

R&D는 안의 모듈을 Development 하고 만든 것을 local에 전달하고, local의 Application Center는 그런 모든 반응, 그곳에서 연구한 내용이 실제로 이 local에서도 Application이 되는지 확인하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학위를 더 가지고 취업을 할지 바로 취업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 가셨을 때 가지고 계신 학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전 이 사람이 어릴 적 가지고 있는 경험 그 하나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석사다 박사다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저를 뽑아준 선배들은 나를 반추동물 미생물 연구 분자생물학을 연구했기에 뽑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석사라는 과정을 박사과정을 경험했고 박사과정을 통과를 한 그 과정에 점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참고문헌을 찾아보고 나름의 논리를 세워보고 그 실험한 것이 한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 되었다면 석사예요. 박사는 그 시리즈가 세 네 개가 연결 되고 그 안에서 종합적인 결론이 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회사는 바로 이런 박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의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규명해보고 싶다 발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박사까지 가는 것을 추천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규정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박사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다니다가 필요에 의해 중간에 박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비밀비재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때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서 괴리감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논리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학생 때라고 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뒷 면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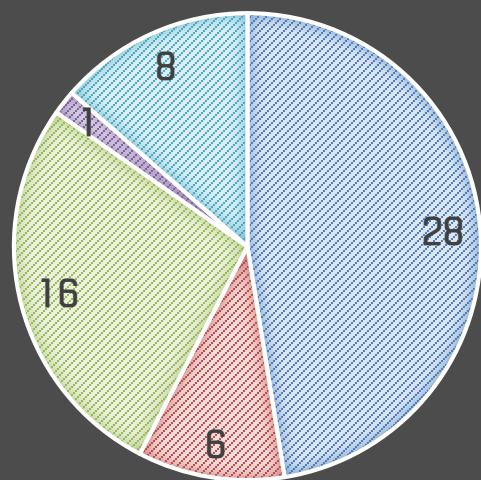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많은 기회비용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려놔야 하고, 학생 때는 기득권은 없잖아요.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사회가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물질적 보상은 없어요. 석, 박사를 하려면 7, 8 년이 걸려요. 남들은 7, 8년 전부터 돈도 벌고 또 열심히 잘 사는 친구들은 그 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잘 해요. 요즘 세상에서 7, 8년은 자기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굳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가 아니어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굳이 박사를 갈 필요는 없어요. 석, 박사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았으면 해요. 만약 고민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연구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규명하고 싶고 이걸 규명하지 못하면 좀이 쑤신다 이런 사람만 했으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안 하면 후회하거든요. 남이 한 거 듣기만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박사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 첫 교육 시간에 철학 이야기를 해요. 철학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거든요. 철학이 생기는 순간 삶이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에이밍 점이 생겨요. 지금은 광활한 벌판에 서있는 듯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효율적일지 모르잖아요. 에이밍을 했을 때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 남들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을 달성할 거예요 또 스스로도 다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학위라는 것도 취업이라는 것도 전부 과정일 뿐 껍데기예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껍질이 아닌 알맹이, 즉 궁극의 목적이 필요해요. 궁극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목적을 달성해도 허전하죠. 거창할 필요 없고 철학개론을 들을 필요 없고 유치해도 상관없고 바뀌도 되니까 자신의 알맹이, 철학을 찾았으면 해요. 앞으로의 일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동자과 실험실 취업현황

■ 축산업계 ■ Post-doc + 연구소
■ 교수 ■ 유학
■ 기타



반추동물영양생리학실 실험실원 취업현황

- 반추실 1기 (지도교수 하종규)
1986 ~ 2012 실험실원 총 71명 배출
- 반추실 2기 (지도교수 백명기)
2012 ~ 현재 졸업생 총 1명 배출

인터뷰에 응해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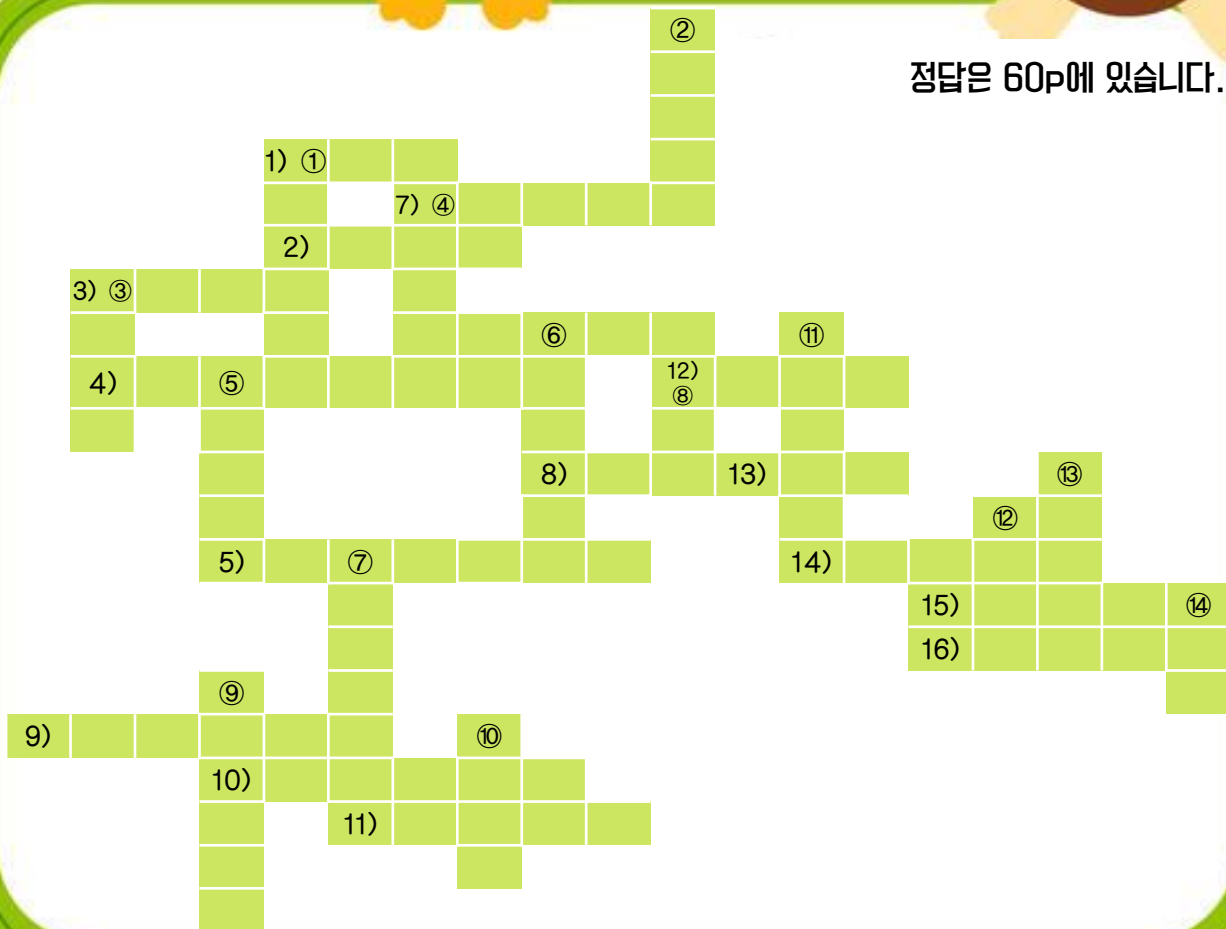
두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물과 Crossword

글 : 안동훈 이상범 최준일 조상현
디자인 : 동희원



정답은 60p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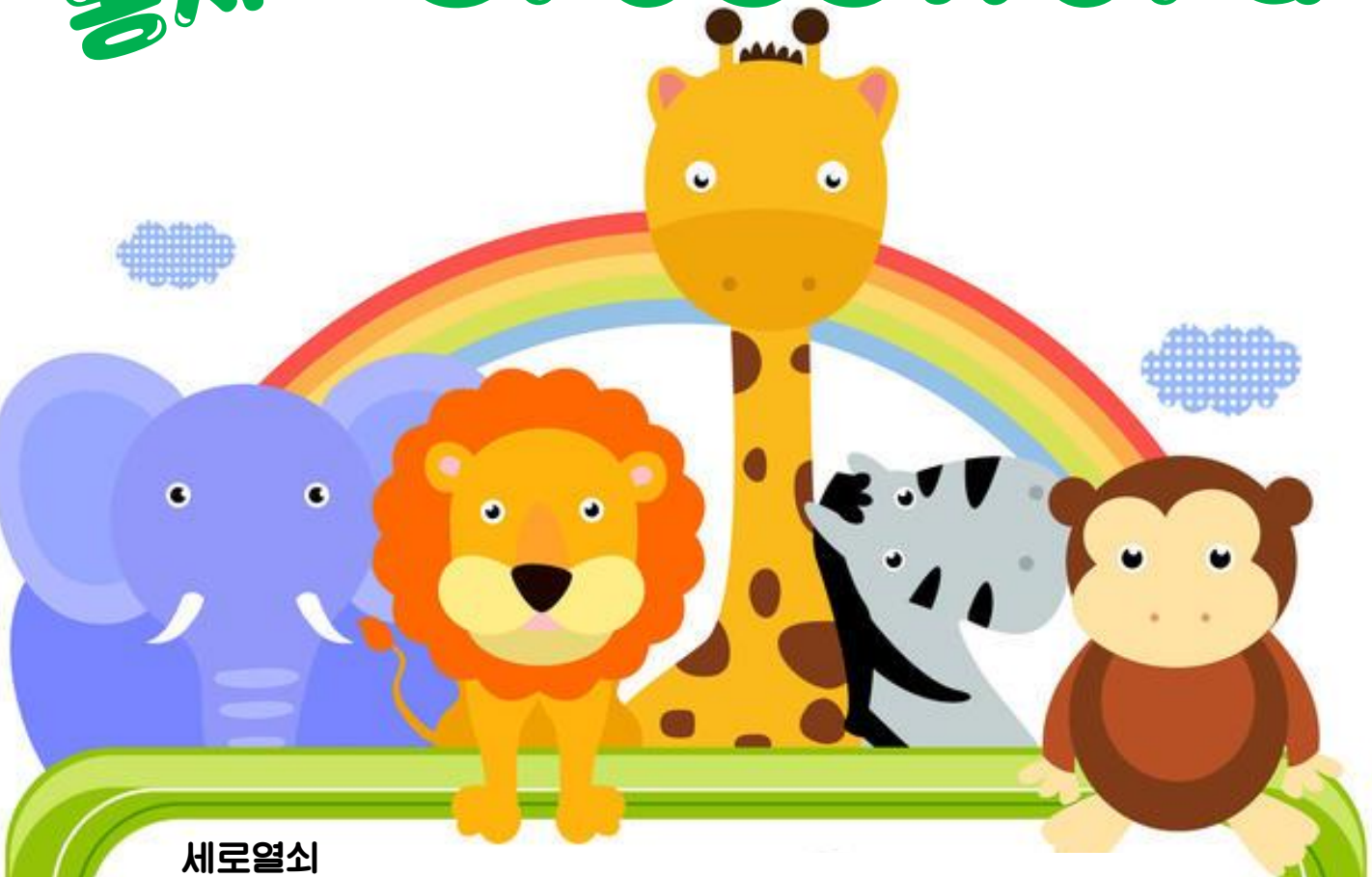
동자와 Crossword



가로열쇠

- 1) 말초 혈액 내에 존재하는 유형 성분인 혈구의 일종으로 부착과 응집 과정을 통해 일차지혈 기전을 담당함
- 2)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서 순환하며 완충작용을 하며 호르몬, 노폐물의 운반의 역할을 함
- 3)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몸이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감지하는 평형기관
- 4) 동물생명공학과의 이전명칭
- 5) 성선을 표적기관으로 하여 자극하여 그 기능을 지배하는 호르몬의 총칭
- 6) 동물생명공학 전공 2학년 전공필수 교과목
- 7) Salmonella gallinarum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감염증으로 닭의 추백리와 유사하며 졸음, 식욕부진, 극심한 쇠약,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음
- 8) 세포분열 시 핵 속에 나타나는 굵은 실타래나 막대모양의 구조물로 유전물질을 담고 있음
- 9) 리보스의 하이드록시기가 수소 원자와 치환된 당, 염기, 인산과 결합하여 얻어지는 것
- 10) 세포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리 결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
- 11) 세균의 세포 내에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DNA
- 12) 핵산을 구성하는 피리미딘 염기 중 하나
- 13) 닭의 모에 기생하는 외부 기생충으로 흡혈을 하여 닭의 영양이 나빠져 다른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됨
- 14) 염기성인 아미노기와 산성인 카르복시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화합물
- 15) 팬, 창문, 모니터, 루우버, 출구문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를 축사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구
- 16) 생균제의 기본적인 작용기전. 유익한 세균이 가축의 장내(腸内)에서 우점(優占)함으로써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것

동자와 Crossword



세로열쇠

- ① 정상적 뇌조직에서 색소, 약물, 독신 등 이물의 이행을 저지하는 역할
- ② 6탄당으로 유당의 구성 성분 중 하나
- ③ 4개의 위를 가지며, 반추위(제1,2위)에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 영양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동물
- ④ 자연계의 화학반응 중에 물 분자가 작용하여 일어나는 분해반응
- ⑤ 맹장과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영양소를 섭취하는 수단으로 스스로의 분(糞)을 먹는 습성
- ⑥ 세포액 · 체액 · 혈액과 동등한 삼투압 0.85~0.9%의 식염수
- ⑦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5탄당으로 목당이라고도 불림
- ⑧ 네프론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물로 모세혈관이 털 뭉치처럼 꼬여서 형성
- ⑨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아미노산의 중합체
- ⑩ DNA상에 존재하는 18~40개로 구성된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DNA 두 가닥을 절단하는 인공 제한효소
- ⑪ 진핵생물 세포의 세포소기관 중 하나로 TCA회로와 전자전달계를 통해 에너지생산에 관여하는 기능. 2중의 내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크리스타 구조를 가짐.
- ⑫ -OH로 표시되는 1가의 기
- ⑬ 유전자형이 알려지지 않은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서 열성동형접합체의 개체와 교배하는 것
- ⑭ 소, 면양, 돼지 등 우제류 동물에게 나타나는 급성전염병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감염속도도 빠름



후배들의 물음에 선배들이 답했다!

시즌 1 : 학교생활편

글 : 김태주, 이상범, 이유진 / 디자인 : 동희원

Question to '통학러'

Q. 통학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평소 통학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활용하시는지 알려주세요!!

A1. 멀미가 심해서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잠을 자면서 가는 편이고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통학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되다 보니 시험 기간 동안 공부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통학시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수업시간에 한 필기나 정리를 보곤 해요.

A2. 퀴즈가 있을 때는 전날 미리 공책이나 종이에 정리해두고 지하철 안에서 정리해둔 것을 보면서 외워요. 1학년 때에는 화실 리포트 작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화실 리포트 정도로 단순한 과제는 시간이 없다면 지하철에서 하기도 합니다.

Q. 보통 선배님들께서는 서울대입구나 낙성대역에서 강의실까지 몇 분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고 이동하시나요?

A1. 여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수업 30분전에 서울대입구역에 도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A2. 30분은 잡아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5513을 타는 경우 보통 농대까지 15분이 소요되는데, 보통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여유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Q. 수업시간 30분 정도 전에 서울대 입구 역에 도착했다면 일반버스와 학교 셔틀을 타는 것 중에서 어느 경로가 더 빠르게 도착 가능할까요?

A1. 강의실 위치에 따라 학교 셔틀을 탈 경우 많이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 강의실 근처에 도착하는 일반버스를 애용하는 편이에요.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에 앱을 통해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뒤 일반 버스가 너무 먼 위치에 있을 때는 종종 학교 셔틀을 탈 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버스든 셔틀이든 소요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A2. 9시나 11시 수업은 셔틀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학교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히 9시 수업일 경우 공대 셔틀을 타는 것이 농대를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편리해요. 오후수업의 경우 셔틀 배차간격이 길어 셔틀이 언제 도착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서울대입구역에서 버스앱으로 일반버스를 이용한 경로를 검색해보고,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5~7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다면 6번 출구 길 건너에 위치하는 정류장에서 탈 것을 추천할게요.

3번 출구 근처에서 타는 것보다 더욱 더 쾌적하게 탈 수 있습니다.

Q. 통학을 하면서 얻게 된 꿀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① 통학 시에 이어폰은 필수라고 느껴져요.

② 피곤할 경우 핸드폰으로 진동알람을 맞추 뒤 수면을 취하면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③ 간발의 차로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리자마자 열심히 뛰어서 버스 줄에 서는 것을 추천해요

④ 통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쉬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요.

⑤ 9시 반, 10시, 11시, 12시 반에 수업일 경우 딱 맞추어 학교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므로 20분 먼저 출발하는 것을 추천해요.

⑥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두면 준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⑦ 지하철에서 앉고 싶다면,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빠른 환승 칸을 노리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2호선 외선 순환 사당역 열차의 5-3은 빠른 환승 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내려요. 4호선 오이도행, 사당행, 안산행 열차를 탔을 경우 5번 칸에 타면 충무로에서 대부분 내린답니다.

⑧ 저는 지하철로 통학할 경우 ‘환승을 많이 하지만 빠른 경로’와 ‘환승은 적지만 오래 걸리는 경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를 갈 때는 시간이 없으므로 ‘환승을 한 번 더 하지만 더 빠른 경로’로 가고 집에 갈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몸은 피곤하므로 ‘환승을 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로’를 이용해요.

⑨ 체육관에서 수업이 끝나는 경우, 501이나 750번 버스를 타는데 ‘삼각지-숙대-서울역-광화문’을 거쳐서 쪽 앉아서 갈 수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Question to '자취러'

Q. 학교근처에서 혼밥을 편하고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맛집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1. 모리돈부리 - 돈부리 함박스테이크 제대로 정말 맛있는 일식

메뉴&가격 : 가츠동(6000원), 치즈믹스가츠동(8500원), 사케동(9900원), 함박스테이크(8000원) 돈까스카레(8500원), 규동(6000원)

위치 : 서울 관악구 관악로12길 6

영업시간 : 매일 11:00 - 21:30 Break time 15:00~16:30

A2. 지구당 - 혼밥하기 딱 좋은 규동전문점

메뉴&가격 : 닭고기 덮밥(7000원:월/수/금), 소고기 덮밥(6500원:화/목/토),

위치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2길 5

영업시간 : 매일 11:30 ~ 21:00 Break time 14:30~17:00 일요일 휴무

A3. 육첩반상 - 샤로수길 혼밥하기도 좋은 이색고기집

메뉴&가격 : 삼겹밥상(7900원), 항정밥상(7900원), 소금구이 반상(6900원), 우삼겹 밥상(8900원)

부챗살밥상(9900원) 소갈비 반상(11900원) 베이컨 토마토 김치찌개(6000원) 우삼겹 시래기 된장찌개(6000원)

미니냉면(4000원) 미니비빔냉면(4000원)

위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길 11

영업시간 : 매일 11:00~22:00 last order 22:30

Q2. 자취방을 구할 때 혹시 전세로도 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전세로도 구할 수 있지만 다만 매물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전세는 아니더라도 반 전세 시스템으로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는 10만 원 정도만 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Q. 자취를 하다 보니 문득 외로움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집이 그리워질 때 선배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A. 그런 경우에는 술을 마시며 해소하곤 했습니다.

Question to '각사리'

Q. 기숙사에서 살 경우, 늦잠을 자서 수업이 10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당장 모자를 쓰고 체육복을 입고 달려간다면 지각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자기 몫이죠...

Q. 룸메이트가 너무 청소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기숙사는 2인 1실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규칙을 룸메이트와 함께 정하는 것이 정말 편합니다. 저는 룸메와 생활시간대가 달라 저로가 자기영역만 치우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상대방 자리가 너무 더러울 경우에는 서로 말해주곤 했습니다.

Q. 기숙사에서 낙성대로 가는 셔틀이 존재하나요?

A. 아쉽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배차간격이 짧은 마을버스 관악02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Question about '동아리'

Q. 선배님께서 참여해보셨던 동아리 중에서, 아직 동아리를 정하지 못한 새내기들에게 대학생활 동안 이걸 정말 꼭 해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추천해주시고 이유도 설명해주세요~!

A. 저는 축구 동아리 2개와 동행, 매김을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신다면 '싸커' 나 '휘모리'를 추천 드립니다. ㅎㅎ 운동동아리지만 나름 재밌습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 부담을 갖지 말고 먼저 다가가야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뛰는 게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한번쯤 해보고 싶어서 '매김 소리'에 참여하여 생전 처음 쳐보는 드럼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기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다 같이 못하니까 실력 차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기를 다루는 초반에는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너무 어렵고 귀찮았지만 한 달만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계속 악기를 연습하면서 곡을 외우고, 팀원끼리 음도 맞추어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고, 새로운 종류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꼭 매김이 아니더라도, 밴드 동아리에서 한번 활동해 보는 것 추천합니다!!

Q. 동아리와 학업의 균형을 위해서 한학 년 동안 최대 몇 개 정도의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A. 사실 작년엔 학업생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제가 드리기에 적절한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이번 학기에 과 축구 동아리 하나만 하고 있는데 동아리 하나를 더 들어가 볼 걸 하는 후회는 있어요. 전공을 안 들어서 그런지 시간보다 생각이 많더군요.

Q.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추억이나 긍정적으로 변화하신 점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A. 맨 처음 합주를 완성했을 때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드럼을 정말 못 쳐서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공연 사회를 봤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었다고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동아리 경험이 좋은 경험으로 남는 이유는 몸의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이겨내고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면서 얻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굳이 사람 많은 동아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거창한 활동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Question about '근로 장학'

Q. 근로 장학을 신청하면 자기 시간표에 맞추어서 근무시간을 짜주나요?

A. 본인 시간표에 맞춰서 근무 시간을 짜주기보다는 본인이 비어있는 시간에 근무를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 개의 근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교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근로 장학신청은 개강을 기점으로 몇 일간 진행되니까 mysnu사이트를 주시하세요!

Question about '학업'

Q. 학점 3이 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할까요?

A. 학점이 3.0을 넘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3을 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어떻게 집중을 하면서 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높다면 공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충분히 3을 넘길 수 있어요!!! 파이팅~

Q. 학교생활에서 학점관리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할까요?(항상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면서 점수를 신경 써서 그런지 학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학에서는 학교생활에서 학점관리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할까요?)

A1. 학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수업을 학점만을 생각하며 듣게 되어서 정말 학교 다니기 싫더라고요. 대학생활은 공부 말고도 즐길 것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가 목표로 한 학점을 맞추기 위한 공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ㅋㅋ)

A2. 대학에 온 것은 고등학교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함이기에 대학생에게 공부는 꼭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지식 전달의 목적보다 아무래도 시험에 특화된 교육 이었다고 하면 대학 공부는 지식 전달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강의를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이 되가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염두하고 학생들은 충실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가 대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면서도 대학생활을 온전히 공부에만 투자하며 지내는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학문 공부 및 연구를 위한 곳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조직에 속하는 사회화 과정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지식을 전달받는 입장에서 전달받은 지식은 이해가 될 때까지 충실히 공부하되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원래 고등학생 때 충분히 고민하고 왔어야 할 문제를 대학입시에 집중된 삶을 살았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도 고려하며 지식을 전달 받는다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입학 후 첫 번째 중간고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시험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A.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화학, 생물학과 같이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들은 시험 보기 2, 3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나머지들은 시험 보기 하루 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의 전제는 수업 시간에 필기 등 어느 정도 수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Q. 1학년 때 학점이 어느 정도 유지해야 평균일까요?

A.사람마다 수강한 과목, 학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몇 점이 평균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동기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3 이상 받는다면 평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Q. 학점을 잘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 까요?

A. 일단 학점을 잘 받으면 가장 먼저 기분이 좋겠죠. 그 외에도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만약, 취업까지 생각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학점이 높은 것이 좋겠죠?

Q. 학점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점이 나중에 어떻게 반영되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A. 학점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떠오르네요. 물론 기업에서는 학점만을 갖춘 지원자보다는 동아리와 같은 다양한 활동까지 갖춘 지원자를 좋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각종 취업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고 학점의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외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겠죠. ㅎㅎ

Q.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A. 과별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부생을 학점 순서대로 전액 장학금, 부분 장학금을 줍니다. 따라서 매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져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년 2학기의 경우 제 경험상, 3.7을 넘기면 부분 장학금, 4.0을 넘기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시험 족보는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방법 말고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A. 시험 족보는 SNULIFE에 있는 족보게시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강의들 같은 경우, 여러 학기 버전의 족보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about '공강'

Q. 긴 공강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A1. 예습 복습을 한다.
- A2. 관정 6층 멀티미디어실에 가서 영화를 본다.
- A3. 장터를 하나씩 다녀본다.
- A4. 과방에 와서 과 사람들과 친목을 쌓는다.

Q2. 공강 요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요일이 가장 좋을까요?

월요일/금요일-금토일 혹은 토요일 3일을 쉬면서 주말이 길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화/목-5일 중 하루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면서 숨을 돌릴 수 있다.

수-월요일과 화요일을 참으면 수요일 쉬고, 목, 금 참으면 이제 주말! 일주일을 버티기가 쉽다. 어쨌든 공강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요일이던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ㅎㅎ

Question about ‘학교 주변 시설’

Q. 맛있는 학식과 주변 식당 순위를 알려주세요!

A. 아름드리(예술계 복합연구동 식당)>두레미담>사범대 4식당>농식>동원관 식당>학생회관 식당>자하연 식당

Q. 헬스 외에도 학교 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A. 자연대 헬스장, 공대 헬스장, 포스코관 수영장(경영대쪽), 테니스, 배드민턴이나 농구 축구 등을 야외에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Q. 학교에 지인이 놀러 온다면, 먹으러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A. ‘두레미담’이나 ‘사반’을 추천합니다, 어린 친구들이라면 학식을 함께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Q. 시험공부를 하기 좋은 학교 내 시설을 추천해주세요!

A. 농생대 유스페이스, 과방, 관정도서관 등을 추천합니다!

Q. 휴게실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남자 휴게실이 따로 없으니 여자 휴게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농생대 1층에 있는 휴게실이나 학생회관 2층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증을 대고 들어가면 됩니다.

Q. 친구를 서울대입구역에 놀러 왔을 때 같이 가볼만한 맛집이나 카페를 알려주세요.

A1. 오후의 과일-맛있는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

A2. 니와/샤로스톤-밥약의 전설! 비싼 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한번은 가봐야 할 샤로스길 맛집.

A3. 도리도리 하찌-특제 소스에 풍당 담긴 닭볶음탕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A4. 에그썸-예쁜 오므라이스를 먹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음식점. SNS의 힘으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중!

Question about ‘꿀강 추천’

Q. 시험 없고 출석만 잘하면 비제로 이상 주는 꿀강은 없을까요?

A. ‘창의적 사고와 표현’ :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며 과제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 학술적인 성격이 아니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담적은 과제입니다.

단, 어떤 수업이든지 자신이 노력을 해야 성적은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Q. 선배님이 들으셨던 꿀강 추천해 주세요!

A1. ‘사람 뇌의 구조와 기능’ -강의 내용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워낙 드랍자가 많고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시는 편이어서 버티기만 한다면 B+는 나온다고 해요.

A2. ‘철학으로 예술보기’ - 드랍자가 많으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고 중간 및 기말 리포트와 출석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찾아보니,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은 최연희 교수님인 것 같아요.

A3. ‘역사와 역사 재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력이 너무 좋으시고 수업 내용도 흥미롭다고 해요. 기말고사, 서평, 답사 보고서로 로드가 이루어져 있는데, 성적을 잘 주신다는 강의 평이 많습니다.

Question about ‘기타’

Q. 시흥캠퍼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A.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되어 시흥에 캠퍼스를 짓기로 하였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었기에 캠퍼스에 영리시설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한 학생들이 10월과 4월에 투쟁한 결과 연구소만 짓기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Q. 선배님이 주시는 장학금도 있나요?

A.동문회 장학금, 선배님이 주시는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담 행사나 축산의 밤 등에서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Q. 대학생살이 2달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동기들과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되면 선배님들처럼 동기들과 편해질 수 있을까요?

A. 아직 한학기도 지나지 않았습시다! 과 동기들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행사를 함께하며 얼굴 보고 추억을 쌓을 기회가 더 많을 거랍니다. 과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면 과방에 자주 들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BeLePi

- 빵물리에 -

저렴한 커피와 맛 좋은 빵으로 농대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벨에삐! 하지만 벨에삐에 빵을 먹으러 갔다가 다양한 빵들 중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하지 못해 고민에 빠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동행의 '먹을 줄 아는 놈들' 이 뭉쳤습니다. 저희 좀 먹을 줄 아는 4인방은 3주 동안 24종류의 빵을 직접 먹어보며 빵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며 평가해왔습니다. 그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손님에게 잘 맞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소믈리에' 처럼 빵을 추천해드리는 '빵물리에'가 되어 벨에삐에서 빵을 고를 때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글 손범수 안동훈 이석중 최상헌

디자인 김민영

1

“오늘은 학식이 별론데?”

– 한 끼 식사 해결해 주는 빵!

오늘 학식이 맘에 안들 때, 농대 밖으로 나가기 귀찮을 때, 아침식사가 필요할 때! 안성맞춤인 빵 들이다.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3,500) 맛 4.2 가성비 3.2

안에 들어 있는 닭고기가 매우 맛있을 뿐만 아니라 크랜베리와 치킨이라는 조합이 의외로 환상적이다.



햄에그 샌드위치 (₩3,500) 맛 4.2 가성비 3.2

샌드위치의 정석. 맛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 커피를 지참하자.



머핀 (₩2,500) 맛 3.5 가성비 4

무난한 맛이다. 샌드위치 보다 1000원 싸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잡채 고로케 (₩1,400) 맛 4.3 가성비 4.3

친근한 잡채 고로케다.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고 양이 괜찮다. 다만 조금 느끼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뉴 핫치킨 고로케 (₩1,400) 맛 3.1 가성비 2.7

조금 자극적이고 짜다. 당시에는 고로케의 빵 상태가 좋지 못해 촉촉함이 턱없이 부족했다. 생각보다 양이 적다. 우유를 곁들이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

그냥 맛있는 빵.

음식은 자고로 맛있어야 한다. 물론 빵도 마찬가지. 빵물리에들의 찬사를 자아낸 맛 평가 고득점 빵들을 알아보자. 그냥 맛있어서 한 줄 평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마늘 패스트리 (₩1,800) 맛 4.5 가성비 3.8

마늘과 빵의 조합은 항상 좋다. 입천장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빵 하나다.

커피번 (₩1,600) 맛 4.8 가성비 4.2

너무 맛있다. 맛없을 수가 없는 빵.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다.
???: 5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크림치즈 아몬드 패스트리 (₩1,800) 맛 4.4 가성비 3.2

크림치즈가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한번 놀라고 그럼에도 너무 맛있어서 두 번 놀라는 빵.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먹기는 쉽지 않은 빵.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빵

그냥 오다가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싶을 때!
필요한 빵 들이다.

3



chap-sal donut (₩1,000) 맛 3.9 가성비 2.8

추억 속의 그 맛...! 에서 겉에 붙어있는 설탕을 뺀 맛. 쫄깃함이 역시 일품이다.

마늘빵 (₩2,700) 맛 4.2 가성비 3.8

맛있는 마늘빵이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양이 많은데, 맛이 조금 자극적이라 혼자 먹기는 힘들다. 여러 명이 하나사서 집어먹으면서 공부하기 알맞은 그런 빵이다.



4

취향 저격 빵들

특정한 재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빵들이다.



초콜릿은 뭐랑 먹어도 맛있어..

빵 오 쇼콜라 (₩1,500) 맛 3.8 가성비 2.8

초콜릿의 단맛이 강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다.
당이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꿀맛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크림치즈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크리스피 크림치즈 호두빵 (₩1,800)
맛 4.3 가성비 3.7**

크림치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 만족할 맛,
하지만 퍽퍽한 감이 있다.



벨에베에서 '한국의 맛'을 외치다..

**한 입 가득 찹쌀떡 패스트리 (₩1,500)
맛 4.3 가성비 3.7**

빵과 떡, 그리고 팔의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맛이다. 하지만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입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난-무난한 빵들

5

안타깝게도 눈에 띄는 특징을 타고나진 못했지만 항상 스테디셀러로서의
삶을 유지해온 빵 들이다.



블루베리 크림치즈 패스트리 (₩1,500)
맛 3.7 가성비 3.2

정말 무난한 빵이다. 모든 방면에서 무난하기 때문에 그냥
심심할 때 먹으면 될 것 같은 빵이다.

정통 소시지 데니쉬 (₩1,800) 맛 4.3 가성비 3.8

정통소세지라 그런지 소세지가 짜지 않고 맛있다. 데워 먹으
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다. 다들 알겠지만 빵과 소세지가 향
상 입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게 맛의 핵심.



햄 치즈 데니쉬 (₩1,600) 맛 4.3 가성비 3.3

햄과 치즈의 조합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이다. 사이즈가 좀 작은 게 흠.

치즈 야채 브레드 (₩1,500) 맛 3.3 가성비 4.3

치즈와 야채의 맛이 조화롭지만 토핑이 빵 위에만 얹어져
있어 뭔가 아쉽다.



롤 피자 (₩1,600) 맛 3.3 가성비 2.7

향이 강하고 양이 좀 적은 편이다. 호불호가 좀 갈릴 맛이다. 게
다가 껍질이 좀 뽕족해서 잇몸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6

흠~ 좀 아쉬운데...

빵몰리에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안타까운 맛의 빵 들이다. 고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낙엽 패스트리 (₩2,000) 맛 1.9 가성비 4.5

가운데에 블루베리 잼이 있는데 빵에 비해 너무 적어서 맛이 잘 나지 않고 그마저도 맛이 별로다. 하지만 그만큼 빵이 많으니 배가 너무 고플 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입천장 파괴주의..

모카번 (₩1,600) 맛 2.5 가성비 4.2

왜 커피번은 이름이 커피 번이고 모카번은 이름이 모카 번인지 알 수 없다. 모카빵 맛 이기는 하다. 외관은 소보루빵에 가깝다. 건포도가 들어있으므로 건포도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피하자. 밀가루 맛이 좀 난다는 단점이 있다.



밤 롤 브레드 (₩1,800) 맛 2.4 가성비 2.3

맛있는 맛이다. 한입 물었을 때 밤 조각이 없으면 많이 섭섭하다. 좀 딱딱한 느낌도 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빵.

시나몬 크림치즈 호두빵 (₩2,500) 맛 2.5 가성비 3.5

이름만 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이름에 드러나는 세 가지 핵심 재료가 모두 따로 노는 참사가 벌어지고 만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빵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가성비 甲

7

통장과 내가 함께 배고플 때 추천하고 싶은 빵들이다.



스마일 슈크림 빵 (₩1,000) 맛 3 가성비 4.5

맛은 그냥 애매하지만 상당한 가성비를 지닌 빵이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당신..! 오늘 점심은 스마일 슈크림 빵이다.

우리 통밀 꺾배기 (₩1,500)
맛 4 가성비 4.4



꺾배기 본연에 맛에 은근히 견과류 맛이 더해진 것이 일품이다. 양이 많은 편이라서 간식인 척 먹었다가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빵 먹을지 고르셨나요? 맛이라는 게 개인차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평가가 맘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벨에베에 가셨을 때 후회 없는 빵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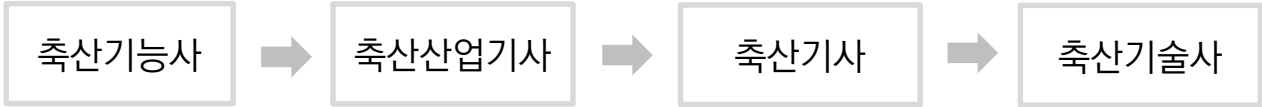
축산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글. 동희원, 최연희
디자인. 전태규

축산관련 자격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넓고 다양하다. 축산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축산 관련 자격증 4가지를 소개한다.

축산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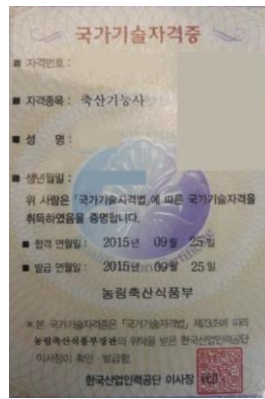
자격증 관계도



※4가지 모두 국가기술자격증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1. 축산기능사

자격증 한줄 요약!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합격률도 높은 자격증



축산기능사 시험은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이라면 굳이 취득할 필요는 없다.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매년 96%가 넘을 정도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에 속한다.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점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

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축산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축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축산기능사는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취업방향으로는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축산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2. 축산산업기사

자격증 한줄 요약!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검정방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 기준은 필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다. 합격률은 매년 필기 약 30%, 실기 약 50% 정도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축산산업기사 취득자는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받는다.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

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축산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5%를 가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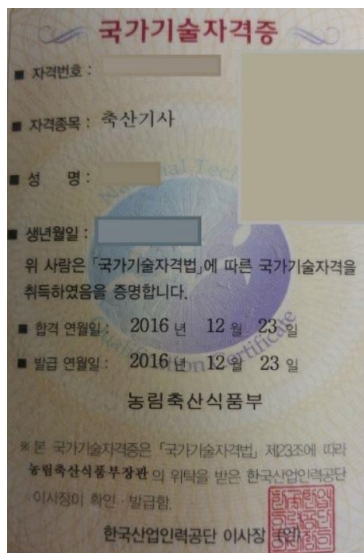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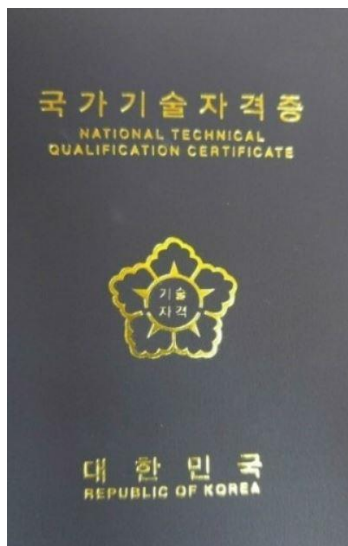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축산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3. 축산기사

자격증 한줄 요약! 높은 숙련기능을 요구하는 고급 자격증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검정방식은 축산산업기사와 동일하며, 합격률은 매년 필기 약 30%, 실기 약 60% 정도이다.

축산기사 취득자는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받는다.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

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축산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축산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으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축산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4. 축산기술사

자격증 한줄 요약! 높은 가산과 우대를 자랑하는 축산 자격증의 꽃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육류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고,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축산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축산 기술사는 축산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검정방식은 필기 및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두 시험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이 기준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축산기술사에게는 농업 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축산기술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7%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동자와 Crossword



정답



Photo by. 15학번 김세영

저희와 함께 **동행** 하실래요?

구독, 지원 문의) walktogether16@naver.com

Editor's Postscript

동행 제6호를 만든 소감

Review

Donghang Editors



에디터 | 김동민

이번 동행에서는 여태까지 해본 적 없었던 선배님의 인터뷰까지 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동행을 하기 시작한지 벌써 3개 호가 지났지만 아직 안해본게 남아있네요ㅎㅎㅎ 다음 동행 제발 화이팅!!

에디터 | 이상범

열심히 해준 18친구들 덕분에 이번 동행 6호 작업이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도 같이 열심히 동행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터 | 안동훈

동행 6호를 준비하면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었고 이런걸 써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던졌던 주제로 글을 쓰게되서 조금은 불안했지만 같이 준비한 친구들 덕분에 재밌게 준비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또 동행 활동 하고싶습니다ㅎㅎ



에디터 | 손범수

동행활동을 하는게 처음이라 잘 할 수있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재미있는 주제로 글을 쓰게되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준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에디터&디자인 | 전태규

동행에 들어와서 디자인 팀에다가 팀장까지 맡게 되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친구들이랑 형 누나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끝낼 수 있었고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호도 화이팅!



에디터 | 이유진

동행 활동이 처음이라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무사히 마친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 다음 호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한 팀원들 너무 고맙고 동행을 항상 응원해요~!!

Donghang Ed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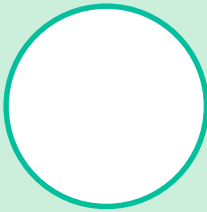
에디터 | 김현경

활동을 하면서 동자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팀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동행 화이팅!!

에디터 | 최상현

이번 동행 6호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진지한 얘기를 담은 부분, 가볍게 즐길만한 것들을 소재로 쓴 글. 여러 주제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동행 6호에 참여하는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풍부해진 동행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부터 동행을 같이 이끌어가던 선배, 동기들과 동행에 새로 참여하게 된 모두들,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터 | 윤재현

처음에 갑작스럽게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긴 했지만, 기사 작성을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행 6호 제작자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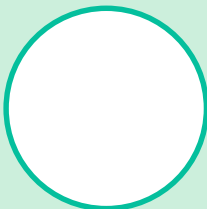


에디터 | 최준일

글쓰기, 인터뷰등이 모두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동기,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경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에디터 | 김태주

동행활동을 통해 동자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애정이 생겼습니다! 코너를 구성해보고 글도 써본 경험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동참해주고 많은 부분 도와준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동행 앞으로도 화이팅!!~!



에디터 | 조상현

동행활동을 통해 선배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수 있어 좋았습니다. 동행 6호 제작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Donghang Editors



에디터 | 최연희

이번 동행 6호는 특히나 색다르게 진행되어서 새로운 느낌이 많았고 동행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좋은 추억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족한 팀장이었음에도 잘 따라와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이 더 잘되길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에디터 | 이석종

동행활동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작성을 위한 활동을 해보며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선배, 동기들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행 화이팅..!!!



에디터 | 전민경

이번 호가 동행부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라 뜻깊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물을 보니 뿌듯합니다!! 또한 동행을 통해 평창캠퍼스 견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도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동행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디터 | 정승은

동행 활동을 하며 동자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특히 멘토멘티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며 동자와 선배, 동기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장을 맡게 되어 처음엔 막막했지만, 국장님과 팀원들 모두 협력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동행 화이팅! 동자와 화이팅!!

에디터&디자인 | 동희원

처음 맡은 디자인팀이었는데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동행뽀에버♡♡



에디터 | 허수민

제대로 기사를 써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조장님과 조원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Donghang Editors



에디터 | 이수호

회차가 거듭됨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번 동행 6호에서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활동하신 모든 분들의 동행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호에도 이 애정 식지 않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재미있기 동행 7호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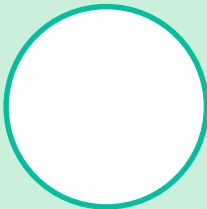
에디터&디자인 | 유승학

동행을 마감한다.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 새로운 동행이 시작된다.
벌써 6번째 이러한 순환을 맞이하고 있네요. 그래도 매번 새로운 느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7호에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동행이 시작할지, 그리고 마무리 될 지 기대됩니다.



에디터 | 최유진

모두 처음해보는 것들이라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선배님들과 동기들, 특히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동행 화이팅!



에디터 | 지상혁

이번 6호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6호 활동했던 분들 다들 수고했어요!

에디터&디자인 | 김민영

이번 6호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았는데 결과물이 잘 나온 듯 해서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 발전하는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즐거운 동행이 되길 ☆



에디터 | 박수현

수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옆의 사진을 눌러주세요!

Thanks For your favor

동행은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라도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후원 금액은 명단에 1년간 게시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문의번호 : 010-6549-0147

후원자 Donor

동행4호

서울대학교 축산학 동문회

500,000원

동행5호

송제언 선배님

150,000원

동행6호

최윤재 교수님

익명

300,000원

200,000원

동행

2018년 9월 제 6호